

성장의 기회를 삼아서 ...



이민영

-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과 졸업예정
- 2022년도 5급 공채(행정) 교육행정직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2년 5급 공채 교육행정 합격자 이민영입니다. 이렇게 합격수기를 쓰게 되니, 드디어 최종합격을 한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반 전에 시험에 진입할 당시, 합격수기를 보고 공부 방향을 잡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수험생마다 공부 방법은 다양한 만큼, 제 방향만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니므로, 이 합격수기를 참고하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세워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합격 수기는 시기별 공부, 과목별 공부, 그리고 그 외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II. 시기별 공부

1. 수험 기간 개괄

저는 1년 반 (2021.01~2022.06) 동안 고시공부를 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끝나가는 12월에 진입을 결정하였고, 2021년 1차 시험에 접수하며 본격적으로 PSAT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커트라인을 겨우 맞춰 급하게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생생활, 학교 비대면 수업, 고시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2021년 2차에서는 행정학 과락으로 불합격

하였습니다. 2021년 2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고시공부와 학업을 병행하며 시간을 보냈고, 2021년 11월에 고시촌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고시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2021년 상반기, 하반기, 2022년 상반기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1년 상반기

2020년 12월 말에 행시진입을 결정하고, 2021년 1차에 응시하기 위해서 1차 공부에만 매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020년도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을 혼자 독서실에서 풀어보았는데,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료해석이 제일 약한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료해석의 경우에는 인강을 통해 개념강의부터 차근차근히 듣고, 그 외의 과목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바로 기출분석 및 실전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헌법은 개념 인강부터 들었고,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와 핵심강의는 빠르게 배속하여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차 시험을 3월초에 보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불합격할 것으로 생각하고 쉬고 있다가, 한 달 이후 합격문자를 받고 급하게 2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과학교육과이다보니, 교육학을 제외한 과목들은 접해본 적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2021년 2차 합격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실제로 제일 어려워하는 두 과목인 경제학, 행정법에서만 과락을 면하자는 생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두 과목에 편중된 2차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같이 갑작스럽게 1차합격을 맞이하는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차근차근히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시험 날짜에 맞춰 준비하고 시험장에 직접 들어가 봤던 경험이 다음 해의 합격으로 이끈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2021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부터는 졸업을 위해 6학점이 부족하여 학교 비대면 수업으로 '행정학의 이해', '행정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신림동 원룸으로 옮기면서 낮 시간에는 학원 실강을 수강하고 저녁 시간에는 대면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낮에는 과목별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등을 차례대로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차 시험에 준비하기 위해서 밤 10시에는 매일 피셋 스터디에 참여하여 밤 11시 30분까지 하프 세트를 풀고, 스터디원들끼리 오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PSAT 문제를 풀면서 1차에 대한 막연함 불안감을 해소하였던 것 같습니다.

4. 2022년 상반기

(1) 1월, 2월에는 PSAT에 집중하고자 대면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대면스터디는 월-금 아침 8시-1시 사이에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의 순서대로 풀 세트(각 과목당 90분씩)로 같이 시간 맞춰 푸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자 점심 식사를 하고 3시까지 자신의 틀린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모의고사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뽑았습니다. 3시부터 5시에는 다시 스터디룸에 모여서 오답을 나누고, 자신의 오답 중 중요하다고 생

각되는 문제와 풀이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스티디를 통해 아침에 꾸준히 일어나서 규칙적으로 공부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고, 모의고사의 해설지 이외의 스티디원의 실전풀이들을 같이 나누면서 실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2) 3월부터 6월까지의 처음으로 3순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공부 순서는 학원에서 진행되는 순서인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의 순서대로 나뉘어서 진행하였으나, 제가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인 행정법은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침 7시-8시 사이에 암기 스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2시간의 시간 내에 완결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원 답안 특강 외에도 답안 스티디에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구체적 분량으로는 3,4월에는 매일 200점(20페이지)은 작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300점(30페이지) 정도를 매일 작성하였습니다.

Ⅲ. 1차 공부

1. 헌법

(1) 2021년 처음 진입하였을 때에는 기본 개념강의를 수강하며 헌법 공부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시 행정법을 학습하기 이전으로, 법 용어가 생소하여 헌법과목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헌법 개념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 O/X 교재를 활용하여 자주 출제되는 선지를 정리하고, 강사의 진도별 모의고사와 5급 공채 기출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자 하였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늘 헛갈리는 정족수, 헌법 조문등을 한페이지에

정리하여 시험장에 들고 갔었습니다.

(2) 2022년에는 기본 강의는 수강하지 않는 대신, 최신 판례특강이나 핵심 인강 등을 활용하여 바뀐 판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고, O/X 교재의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반영한 2022년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해 문항의 모든 선지에 대한 O/X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행시 기출 외에도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7, 9급 헌법 시험문제를 풀며 조금 더 까다로운 선지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사실 헌법 과목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1차 합격자들은 헌법을 8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논리 시험 이전에 헌법 패스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정도로 준비해야 시험장에서의 멘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는 3개의 1차 과목 중에서 제일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익히려고 했던 과목이었습니다.

실전모의고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기출의 방향에 맞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합격생의 조언을 통해 기출문제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기출을 볼 때에는 답을 고르고 넘어가기 보다는, 한 문제 안에서 각각의 선지를 분석하고 왜 옳고 그른지를 각각 판단하고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3. 자료해석

저는 이공계 학생으로 자료해석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차 수험기간 중 가장 고생한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약한 과목이라고 생각되어, 개념강의를 가장 착실하게 듣기도 하였던 과목이기도 하고, 기출분석도 차근차근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계산실수가 반복되어 오답이 누적되는 스타일로, 모의고사를 풀기 이전에 단순 계산을 꼭 연습하고 시작하였으며, 제가 주로 틀리는 선지는 모아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상황판단

(1) 상황판단은 법조문형 문제와 퀴즈 문제로 나누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조문형의 문제는 나오는 장치들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서 일차적으로 기출에서 출제되었던 장치들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실전 모의고사들의 장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조문형 문제에서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오답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제풀이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점수는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퀴즈 문제를 대할 때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에 대한 선구안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제가 절대로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저의 상황판단 과목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서, 약 20초의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최고득점은 포기하였으나, 오히려 안정적인 점수를 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IV. 2차 공부

1. 경제학

(1) 경제학은 전공지식이 전혀 없어서 예비순환 강의, 1순환 강의, 2순환 강의, 3순환 강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수강하였습니다. 예비순환, 1순환은 인강으로 수강하였으나, 제가 모의고사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 것을 보고 답안작성이 더 중요한 시기인 2순환, 3순환은 신림동 실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인강과 학원실강에 대한 선택은 수험생의 성향에 따른 것이지만, 저와 같이 시험 분위기 속에서 모의고사 작성을 꾸준히 하고 싶은 분에게는 실강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강 들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오후에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반드시 그 날의 수업을 복습하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습할 때에는 해당부분의 기출문제 및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은 다른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2) 국제경제학과 관련해서는 시험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미루었으나, 나중에는 '경제학을 위한 국제경제학 특강'을 통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국제경제학의 내용은 숙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강의의 내용을 100프로 소화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국제경제학을 한번 봤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의 불안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이기도 하

고, 실제로도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의 방법은 간단히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암기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2차 시험 기간에는 아침7시부터 8시 사이에 행정법 암기 스테디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과목 공부 기간에도 꾸준히 행정법 공부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이 다가올수록, 행정법은 답안 작성 내용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답안을 완벽하게 작성하기 보다는 쟁점을 추출하고, 목차 및 키워드만 작성하며 공부하였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이공계인 저에게 행시진입 당시 아주 모호하게 느껴졌던 과목이었습니다. 예비순환, 1순환, 2순환을 들을 때까지도 저의 머릿속에서 행정학의 내용이 명확하게 개념화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육행정 직렬에 비해 행정학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여, 행정법 이론을 외우듯이 행정학 학자 및 이론, 키워드를 암기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총론부터 시작하여, 조직, 인사, 재정의 내용을 순서대로 암기하다보니 행정학 과목의 내용도 조금 명확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학 답안지를 쓸 때에는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치를 한 페이지에 모아 놓고, 최대한 활용하여 답안의 구체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고득점으로 이어진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교육학

(1) 교육학은 교육행정직렬 학생들에게 공부하기에 아주 난해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

니다. 특히 학원강의가 수강생이 많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이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학 이론을 익히기 위해서는 임용강의를 통해 교육학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임용 강의를 다 듣기보다는 5급 공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교육심리학,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평가를 중심으로 학습하였고,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자와 교육학 이론을 따로 정리하여 얇은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2) 또한 대부분의 교육행정직 수험생들이 하듯이, 교육정책스터디를 하며, <행복한 교육>, <교육정책포럼>, 교육부 보도자료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교육정책 스터디에서는 최근 교육 현안을 모아서 답안 정리합니다. 저 또한 교육정책 스터디를 통해 작성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하였고 실제 답안에서도 많이 현출하였습니다.

V. 기타

1. 일주일 일과

(1) 저는 월-토까지는 아침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있으려고 노력하였고, 일요일은 오전에 진행되었던 교육학 스터디를 제외하고는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휴식의 날로 정한 일요일에는 영화를 보러가기도 하고, 집 근처 등산, 산림동을 벗어난 서울 근교 드라이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차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아침7시부터 밤12시로 공부시간을 늘렸고, 일요일의 저녁 시간에는 다시 워밍업을 하듯이 간단하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2) 저는 혼자 고시촌에서 생활을 하였고, 학원 종합반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 비대면 스테디를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스테디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 잘 실행한다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규율이 필요하다면 스테디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험기간을 보내는 방법 또한 참고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상스테디, 공부시간인증 스테디, 복습 스테디, 답안 스테디 등 별금을 통해서 의지력이 약해졌을 때에 그래도 최소한의 공부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던 스테디는 겨울철에 피셋 준비기간을 걱정하여, 1차 대면스테디를 월-금 오전8시-1시, 3-5시에 진행하여 매일매일 풀 세트를 풀고 오답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공부 장소

2021년 1월에 진입하고, 2021년 10월까지 는 집 근처에서 공부하였으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대학동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룸에 거주하였으나, 저는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휴대폰을 많이 하게 되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스테디카페를 선택하여 8개월 내내 다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적인 독서실이 아니라 자유적인 스테디카페를 선택하게 된 것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기 보다는

새로운 자리에 앉으면서 주위 환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한 자리에 계속 앉을 시에 책이 쌓일 것 같아서 하루하루 자리를 정리하며 하루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유석이 있는 스테디카페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3. 생활 습관

저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소화계가 약해져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밥 먹고 적어도 20분 정도는 산책하려고 노력하였고, 공부를 하다 머리가 아플 때에는 자리에 앉아있기 보다는 책을 들고 스테디카페 주위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을 때에는 가족 또는 친구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자 노력했습니다.

VI. 나가며

저는 매우 운이 좋아 합격 그리고 특히 수석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기간 동안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모의고사 점수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테디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 배우면서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합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합격 수기가 5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다른 수험생분들에게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